

어머니를 주신 뜻

Why God Made Mothers

창세기 3:14-2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5월 8일 설교

¹⁴여호와 하나님은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¹⁵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¹⁶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¹⁷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¹⁸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¹⁹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²⁰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어머니날

오늘 어머니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입니까? 자식을 둔 여자가 어머니지요. 직접 낳기도 하고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개는 자식을 낳아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거나 마음먹고 혼자 사는 사람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여자가 어머니가 됩니다. 사람 가운데 남녀가 반반 되니까 전 인류의 반이 어쨌든 어머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도 아직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하나,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됐지만 아직 어머니라는 호칭은 못 얻은 사람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 여자 분들은 모두 어머니시네요. 어머니의 어머니도 몇 분 계십니다.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뭘입니까? 첫째가 사랑이지요. 또 희생입니다. “아바님도 어이어신 마라난, 위 덩더동성, 어마님 가티 괴시리 업세라.” 웬 방언입니까? 고려시대 사모곡이지요. 아버지도 어버이지만 사랑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머니하고 비길 수가 없습니다. “아소 님하, 어마님 가티 괴시리 업세라.” 말도 마시오.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다고!

사랑과 희생, 이 두 가지가 본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한테서 왔습니다. 독생자까지 희생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어머니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머니날은 우리 곁에 계시는 어머니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 좋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아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픔도 함께 왔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몸과 마음을 다쳐 아픈 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과일을 먹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 받은 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고통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선 남자한테 주신 고통은 일하는 고통입니다. 먹고사는 괴로움이지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주로 바깥일을 하니 남자한테 이런 벌을 주신 거겠지요. 일이라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일이 즐겁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너무나 많습시다. 농사를 지을 때는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가 있고 태풍, 홍수, 가뭄 이런 게 괴롭힙니다. 내가 피조물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피조물이 계속 내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고 사는 게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주신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아픔입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이를 배고 낳는 아픔이니까 자식 때문에 받는 고통이지요. 둘째는 남편 때문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말이라기보다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해 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남편이 나를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

서 여기서도 뼈격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아프지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자식하고 남편이 곧 내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 여자의 고통은 다 가정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둘이 서로 돕고 잘 살라고 하나로 엮어 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가정이 여자에게는 고통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다 죄 때문이지요.

부부사이의 복잡한 역학은 그냥 덮어 두겠습니다. 본문의 뜻도 어렵고 실제 부부사이도 무척이나 복잡하지요. 오늘은 아내의 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이니까 오늘은 자식 때문에 받는 고통만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의 아픔

여자에게 주신 첫 고통은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요즘 말로 임신하는 고통이지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하셨는데 원문은 좀 재미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 곧 너의 임신을 크게 더하겠다.” 임신을 하는데 아픔이 동반되는 게 아니고 임신이 곧 고통이라는 뉘앙스가 담겼습니다. (이런 구절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는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지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 임신이 되는데 어떻게 임신이 곧 고통이겠습니까? 성관계를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임신이라는 사건,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생기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했는데 “수고”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임신하는 고통”이라 할 때의 그 “고통”과 같은 어원입니다. “내가 네 고통 곧 네 임신을 크게 더할 것이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임신의 고통이라 한 그게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과 같은 거라는 뜻이지요. 아이를 배고 아이를 낳는 게 같은 거라 하시니 결국은 여자의 몸에 자식이 생기고 그래서 그 자식을 낳는 일, 곧 내가 어머니가 되는 그 일이 바로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통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 낳을 때 고생하는 건 하나님여 여자에게 주신 숙명이라 하면서 뭘 반대합니다. 뭘 반대합니까? 무통분만을 반대합니다. 무통분만 이거 말이 틀렸지요? 무통이라 했지만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라 마취를 해서 출산의 엄청난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합니다. 왜요? 여자가 애 낳을 때 고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 피해가면 안 된다 합니다. 설령 이 구절이 그런 뜻이라도 무통분만을 외면할 필요가 없지만 이 구절은 아이 낳을 때 아픈 걸 두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 무통분만 안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여자와 뱀의 적대감

자, 여자는 죄를 지어 벌을 받기 전에도 어머니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여자가 어머니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죄를 짓기 전에는 어머니가 되는 게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본문 말씀이 임신을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셨으니까 전에 있던 작은 고통을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만 죄가 없는데 고통이 있을 리가 없지요. 처음에는 없었지만 처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수행하기 위해 어머니가 되도록 예정된 여자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고통을 겪는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 어머니 하와부터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못 낳아 고통을 겪다가 첩한테서 아들을 얻어 가지고 또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빛나간 맏아들 때문에, 형제사이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머니가 못 되어 사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복된 여자의 대명사가 된 마리아는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이 십자가가는 끔찍한 사형 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머니는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아픔을 몸소, 남보다 훨씬 더 크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벌이 조금 전 뱀에게 주신 벌하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보아야 됩니다. 뱀에게 주신 벌이 뭘입니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건 일단 뱀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여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뱀이 받은 벌입니다. 여자랑 원수가 되는 게 뱀이 받은 벌입니다. 후손끼리도 원수가 될 거라 했습니다.

여자랑 원수가 되고 특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게 왜 벌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수끼리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발꿈치가 뭉니까? 뱀한테는 없는 거지요.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니까 있습니다. 발꿈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상당한 손상을 끼친다는 뜻이겠지요? 발꿈치를 다치면 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은 동물이니까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지요. 뱀의 몸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대가리뿐입니다. 대가리를 다치면 죽습니다. 이게 뱀이 받은 벌입니다. 사형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해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죽게 만든 뱀입니다. 그런 뱀에게 “네가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했지? 네가 죽을 것이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씨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곳이라 해서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뱀은 사탄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싸움도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합니다. 뱀의 후손하고 합니까? 아니지요. 뱀은 몇 대를 내려가도 똑같은 사탄이니까 그냥 뱀하고 싸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이미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여자가 뭐가 될 거라고요? 어머니가 될 거라는 말씀이 이미 들었습니다. “후손”이라 한 말의 원문은 “씨”라는 말입니다. 자녀 가운데 특히 아들을 가리킵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안 되고 후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건 여자한테 주신 벌이기 이전에 뱀 곧 사탄한테 주신 벌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벌주시려고, 뱀을 죽이시려고 여자를 어머니로 만드셨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그저 사람을 더 만드시기 위해 여자를 어머니로 만드실 것 같았습니다. 그 때는 어머니가 되어도 전혀 아플 필요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와 함께 고통이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되는 건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고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되는 것은 고통이기 이전에 뱀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뱀을 심판하는 게 뭉니까? 사탄을 죽이시는 거지요? 사탄을 죽이시고 사탄이 가져 온 죄와 고통을 없애시는 겁니다. 그러니 뱀을 심판하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어머니로 만드신 것은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고통은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고 또 낳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눈물도 고통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를 고통의 어머니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

아담은 즉각 깨달았습니다. 여자에게 큰 벌을 주셨는데 그 벌 속에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이 벌이지 사실은 복을 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듯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아내를 하와라 불렀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인데, 모든 산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비밀이 숨어 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과일을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내를 “생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벌이라고 주셨는데 알고 보니 복이 숨어 있습니다. 죽을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는 방법, 진짜로 사는 방법을 이미 다 알려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되어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하고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우리를, 여자뿐 아니라 남자까지도,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렸으니 아담도 참 똑똑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니 믿음도 좋았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 몸에서 나왔다고 여자라 불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자라는 이름은 아담의 아내였지만 하와라는 이름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을 얻을 모든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왜요? 세상에 여자는 지금 내 아내 하나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 내 아내의 몸에서 날 사람이거든요. 뱀을 무찔러 이길 메시아의 어머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형판결만을 기다리다가 오히려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내 아내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뱀을 죽이고 우리를 다시금 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임을 믿는 믿음, 쉽게 말해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같이 자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어머니가 될 거라는 말이지요. 어머니가 되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을 임신하고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꼭 “임신하고 낳았다” 이렇게 두 단계로 씁니다. 임신하는 고통도 아주 크고 출산하는 고통도 클 것이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지요.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은 득에 사내 남입니다. “사내를 얻었다!” 하고 고향을 지른 겁니다. 하와에게는 고통의 시작이지요. 왜요? 이 아들이 동생 아벨을 죽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낳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벨이 죽은 뒤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 아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라 했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금 더 알려주신 것이 선지자 이사야 때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젊은 여자가 아들을 배고 또 낳을 것인데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칠백 년쯤 지난 다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사야 흉내를 좀 냅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눅 1:31). 가브리엘도 아이를 밴다는 말과 낳는다는 말을 함께 씁니다. 하나님이 첫 어머니 하와에게 아픔과 함께 주신 그 약속이 이렇게 너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지요.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다음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눅 2:22-35).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 다음 마리아에게도 한 마디 했습니다. “같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아기가 자라 뱀을 쳐 죽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야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하여 어머니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입니다. 이 아기는 자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죽음이니 꼭 필요한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어찌다가 내 구주가 내 아들로 태어나는 바람에 난 사랑하는 아들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형 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람입니다. 내 죄를 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 죽으셔야 되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이 내가 임신해 출산한 내 아들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마리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된 거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마리아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머니와 하나님

그런데 마리아의 이 마음이 알고 보면 다른 어머니하고도 통합합니다. 꼭 메시야가 내 친아들이 아니어도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우선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주는 고통을 가장 많이 맛보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고통은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남편 때문에 고통 받아야 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 받아야 됩니다. 그저 사랑만 있어도 좋을 가정에 죄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이라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통이면서 사랑입니다. 남편이 억눌러 아픈 게 아닙니다. 자식

이 말을 안 들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파하는 사랑, 사랑이기 때문에 아파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험한 세상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앓을사 그릇될사 잠시도 쉬지 못하고 걱정하시는 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는 사람이야 죄를 지어 죽든 말든 뒷짐 지고 계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놔두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끼어드셨고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도 고통에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이 사형 틀에 달려 죽는 것을 지켜보시는 그런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오늘 어머니주일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로 만드신 뜻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 한 번 깨닫고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를 어머니로 만드셨습니다. 자녀를 낳아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은 맛볼 수 없는 아픈 사랑,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사랑을 어머니는 맛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요. 우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이 세상에 와 계시는 어머니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뭘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여 아파하시는 어머니, 아픈 줄 알면서도 더욱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몸으로 느껴 보겠습니까?

수많은 어머니의 수고로 우리 주님이 이천 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일단 눌러 밟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사역이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죄가 있고 그래서 고통도 아직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기꺼이 아픔을 겪으시지만 그 아픔 가운데는 내가 자식이 되어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하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른 다시 오셔서 우리 어머니의 아픔을 없이 해 달라고 간구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어머니주일에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모든 어머니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보람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수경 목사)